

여름철 축사 전기안전 '방심하면 가축 위험'

-전기합선·누전 점검, 정전 경보기·자가발전기 설치-

출처: 농촌진흥청

- ◎ 올해는 폭염일수가 지난해보다 최소 일주일 이상 늘어난 20~25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사의 전기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사 정전 대비·대응 요령을 안내했다.

- ◎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폭증해 정전이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. 또 전기합선과 누전, 갑작스런 낙뢰로 인한 정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.
- 이에 대비해 전기시설과 배선 설비는 반드시 인증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고, 전기배선 덮개와 연결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수리하거나 교체한다.
- 또한, 축사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규격과 용량을 준수하고 콘센트에 지나치게 많은 배선을 연결하지 않는다. 축사 바닥 또는 내·외부 배관 공사를 미리 실시해 쥐 등이 피복을 훼손하지 못하게 막는다.
- 우리나라 연간 낙뢰 횟수의 63%가 여름철(6~8월)에 집중돼 있는 만큼 피뢰침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.

- ◎ 정전으로 물과 사료를 공급하는 자동 장치와 환기 시설이 멈추면 가축이 폐사할 수 있으므로, 경보기와 자가발전기를 설치해 대비한다.
-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정전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.
- 자가발전기는 소요 전력량의 120%로 설치하고, 평상시 정기적인 연료 점검과 시험운전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.
- 무창식 축사 환기팬이 정전으로 멈추면 축사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르고 유해 가스 농도가 높아져 짧은 시간에도 가축이 폐사할 수 있으므로 재빠르게 대응한다.
- 개방식 축사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장애물을 치운다. 이때 직사광선이 가축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늘막을 설치한다.

참고 여름철 축사 정전 대비

■ 여름철 정전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례

- 2018년 8월 충남 당진의 한 양계 농장은 정전으로 송풍시설이 멈춰 닭 8만 7,000마리가 집단 폐사
- 2019년 7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1시간여 정전으로 무창식 축사에 있던 돼지 100여 마리가 질식사

■ 필요 전력량 계산 방법

필요 전력량 계산 방법

◇ 직경 630mm 환기팬(220V, 3A, 660W) 10대를 동시에 가동시키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필요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.

$$- 660W \times 10대 = 6,6kW \times 120\% = 7.9kW$$

이외에 전등, 모터 등 추가 전력량을 계산해 합산하면 농가 자체 필요 전력량이 됨

■ 사진 자료



〈정전대비 전기 시설 점검〉



〈실제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발전기의 모습〉